

두 번째 이야기 「구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요한복음 5장 24절)



아이스 브레이크(Ice Break)

1. 지난 한 주간을 지내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들을 얘기해 봅시다.

2. 어린 시절 부모님께 가장 혼났던 기억은 무엇입니까?

당신은 어떤 실수를 저질렀습니까?

그리고 부모님과 어떻게 화해하셨습니까?



말 · 씹 · 속 · 으 · 로
Into the Word

전 라남도 최남단 소록도에는 한센병 환자들이 모여 사는 소록도가 있습니다. 400여 가구, 1,700명의 주민들이 거주하는 이 섬은 육지에서 불과 2km 밖에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소록도 주민들이 물으로 나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육지가 눈에 닿을 듯 하지만 가로 막힌 바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배를 타고 가야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한센병 환자들을 위해서 매일같이 식품과 의약품 운송해야 하는데 폭풍이 심한 날이면 뱃길마저 끊겨 버리니 주민들의 당하는 고통은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얼마 전 소록도 주민들에게 꿈같은 일이 생겼습니다. 바로 녹동항과 소록도를 잇는 소록대교가 완공된 것입니다. 1,160m에 달하는 이 다리가 개통됨으로 주민들은 더 이상 불편을 겪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날씨에 상관없이 약품과 물자를 운송할 수 있으며, 마음만 먹으면 육지와 섬 사이를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소록도 주민들은 건강하고 풍요로운 삶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섬사람들에게 소록대교는 희망을 잇는 다리이며 한센병 환자들에게는 생명을 잇는 통로와 같은 것입니다.

만일 당신이 소록도 주민들이 겪었던 불편을 겪고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섬 주민들이 겪었던 단절의 고통과는 비교할 수 없는 장애를 안고 산다면 말입니다. 불행하게도 성경은 모든 사람들이 이와 같은 단절 가운데 살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다보다 더 막막한 죄에 가로막혀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영원한 분리 가운데 고통하고 있음을 소개합니다. 하나님과 소통할 수 없는 인간은 진정한 기쁨과 즐거움, 참 행복과 영원한 생명을 잃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고통과 슬픔, 절망과 죽음 가운데 유리하며, 삶의 진정한 목적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Q1) 성경은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어떠한 상황에 처해있다고 말합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 3:23)

세상이 처음 시작되던 날, 하나님은 말씀으로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빛과 어둠, 바다와 육지, 그리고 모든 생물과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을 마치신 후에 보시기에 좋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창조 중 가장 보시기에 좋은 존재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가장 심혈을 기울여 만드신 인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신 특별한 이유가 무엇이였을까요? 그것은 우리와 교제하시기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형상대로 인간을 빚으시고 직접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닮은 인간은 하나님을 볼 수 있었고 함께 대화를 나누었으며 사랑의 교제를 누렸습니다. 처음의 사람, 아담에게 가장 큰 행복은 다름 아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자신을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같은 완벽한 교제에 원하지 않았던 장애가 발생하였습니다. 바로 인간이 죄를 범하게 된 것입니다. 죄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고 신뢰를 무너뜨리며 그 말씀을 거역하는 행동입니다. 아담이 죄를 범한 것은 간교한 사단의 거짓말을 믿은 것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사단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왜곡시켰고, 그 사랑을 오해하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인간은 엄청난 대가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을 만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과 소통할 수 없는 인간에게 남은 것은 죽음뿐이었습니다. 세상 속에서 잠시 쾌락을 즐기고 돈과 명예를 좇아 살지만, 궁극적으로 인간의 죄와 욕망의 노예가 되어 죽음의 형벌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결국 인간은 두 가지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죽음은 자신의 수명이 다하는 육신적인 죽음이며, 두 번째 죽음은 죄의 심판을 받아 끝없는 형벌, 즉 지옥으로 떨어지는 영원한 죽음입니다.

사람들은 다시 하나님을 만나려고 몸부림쳤습니다. 자신이 생각하는 하나님을 만들어 섬기기도 하고, 혹은 하나님의 창조물을 하나님처럼 여겨 경배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내재하는 죄의 형상을 씻어버리기 위하여 금욕적인 생활을 하며 선행에 전념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러한 노력이 모두 헛된 것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추구하는 인간의 노력은 모두 죄성에서 출발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영원한 단절 가운데 죽음을 향해서 달려갈 뿐입니다.

Q2) 죄로 인해 하나님과 분리된 인간의 본성에는 어떤 문제가 발생하였습니까?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로마서 3:10~12)

Q3) 결국 인간이 맞이하게 되는 죄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죄의 삯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로마서 6:23)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요한계시록 21:8)

따가운 햇빛, 목이 마릅니다, 머리에서 발끝까지 온통 피와 땀의 흔적이 역력합니다. 온몸은 살갓과 근육이 구분되지 않을 정도로 상처에 패어 있습니다. 그리고 발가벗겨진 채 십자가에 못 박혀 매달렸습니다. 자신을 비웃는 사람들, 옷을 나누어 갖는 군인들, 두려움에 숨죽이는 제자들, 그리고 어머니... 이제 눈물을 흘릴 힘조차 남아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자신의 잘못을 모르고 행하는 저들의 무지함을 탓할 수 없습니다.

지나온 33년의 삶이 눈앞에 아련합니다. 쫓기듯 피해 간 이집트 생활, 소박한 행복을 누렸던 나사렛의 기억, 그리고 3년간 제자들과 함께 한 사역의 기쁨들... 돌이켜보면 모든 시간이 오늘 이 순간을 위해 준비된 것입니다. 절망이라는 것이 느껴집니다. 죽음이 다가오는 것을 직감합니다. 그러나 마음을 괴롭히는 지독한 고통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버리셨다는 단절의 아픔입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온 땅에 어두움이 내려옵니다. 햇빛은 사라지고 성전의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테렐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예수님은 고개를 떨구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해결되었습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버림받음으로 인간은 모든 죄악과 형벌에서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채찍에 찢기고 십자가에 못박히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생명의 통로를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생명의 다리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끊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구원의 능력입니다. 이 다리를 걸어나가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영원한 기쁨과 영원한 생명, 그리고 영원한 천국을 소유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은 십자가의 구원은 완전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노력과 의지, 능력 때문에 얻게 된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구주로 시인하는 믿음의 고백으로 얻게 되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죄악 가운데 헤매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당신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게로 오라, 십자가 앞으로 나아오라, 영원한 생명의 다리를 건너라,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라,"

Q4) 하나님은 인간을 향한 자신의 사랑을 어떻게 나타내셨을까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 5:8)

Q5) 단절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6)

Q6)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아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참된 믿음은 무엇입니까?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로마서 10:9~10)

Q7)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은 무엇입니까?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사도행전 16:31)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1:12)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요한복음 6:47)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만, 구원받는 자는 모두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그분의 죽음은 마치 태양이 만물을 두루 비쳐 주듯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에 충분하다. 그러나 만약 어떤 사람이 눈을 감아 버린다면 그는 빛을 볼 수 없을 것이다." (헨리 스미스)



오 · 병 · 이 · 어

Sharing your mind

예 수님을 구주로 영접한다는 것은 단순한 지식적 동의나 현세적인 믿음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역사상 실존하였던 성인의 한명으로 생각하거나, 건강, 재정, 그리고 자녀문제 같은 현세적인 목적을 위해 의지하는 믿음은 구원의 능력이 될 수 없습니다.

구원을 받는 참 믿음은 예수님을 내 삶의 유일한 구원자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으며, 십자가 고난을 받아 죽으셨고, 장사한 지 삼 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은 모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위를 누립니다. 단절되었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며 다시 주님과 교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끝날 주님과 함께 천국에서 영원한 기쁨을 누리며 살 것입니다.

만일 당신이 오늘 죽는다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확신할 수 있습니까?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받은 확신이 있습니까? 주님께서는 오늘 당신의 삶 속에 새로운 생명을 심어주시기 원하십니다. 죄와 사망으로부터 해방되어 영생을 얻는 영원한 자유를 선물하기 원하십니다. 당신에게 구원의 확신이 있다면 그 기쁨을 함께 나눠 주시고 혹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의 은혜를 누리시기 원하신다면 아래의 기도문을 읽으며 함께 고백하기 바랍니다.

하 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지금까지 제 자신을 믿고 제 자신의 뜻대로 살아왔습니다. 나의 죄를 고백하니 용서해 주세요. 저는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흘리신 피로 내 모든 죄가 씻겨 졌음을 확신합니다. 저는 더 이상 죄에 얽매인 존재가 아님을 믿습니다. 죄와 사망으로부터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믿습니다. 주님, 제 마음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구원의 믿음을 주십시오.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천국에서 살기 원합니다. 이제부터 영원까지 나의 삶을 인도해주시고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